

공공요금도 못내는 저소득층 어느해보다 힘겨운 겨울나기

일용직 노동자 이모(66)씨는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 지 암담하다. 이씨는 한 달 평균 100만~130만원을 벌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왔다. 하지만 12월 들어 늘 내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일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건설 경기도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40만원 가까이 줄었다. 두 자녀 학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하다. 도시가스 비용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은 끊겼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수월이 있어 전기장판과 온풍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편이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여간 힘겨운 게 아니다.

올 겨울 평균 기온은 0.7도로 지난해 2.9도보다 2.2도 가량 낮아지는 등 동장군(冬將軍)의 기세는 더욱 매서워졌다. 하지만 기가 바닥을 치면서 저소득층은 공공요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도시가스요금 체납세대는 올 들어 1만7000세대(체납액 18억 원)에 달한다. 체납 세대 중 2200세대의 가스공급은 이미 중단됐다. 가스요금 상승 체

도시가스·전기사용 제한 '팍팍한 삶' 자선냄비 식어가고 구호 물품도 줄어

광주지역 공공요금 체납 현황 보니

도시가스 체납 1만7000세대
2200세대는 가스 공급 중단

전기요금 체납 7만1526세대
222세대는 최소 전력 사용

상수도요금 체납액 18억원
지난해보다 2억여원 늘어

내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가스공급 중단 을 유예한 세대(928세대)까지 합하면 3148세대가 가스 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스 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비슷하다. 하루 벌며 하루 먹고사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경우 불경기로 일감마저 줄어들어 공공요금 내기도 버거워하는 상황이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밝힌 체납액만 60억9900만 원으로, 7만1526세대가 전기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

로 파악됐다. 상승 체납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을 고려해 전류제한장치를 달아 관리되는 주민들도 222세대나 된다.

이들은 전동(32W)·TV(80W)·냉장고(140W)·전기장판(180W) 등 동시소비 전력이 총 660W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력이 넘어가면 5초간 자동 단전 된다.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승도 체납액은 18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 16억5000만 원(3만105건)에 비해 2억3300만 원(2만 9482건) 늘었다.

도움의 손길도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광주지역의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은 ▲2011년(2880만원) ▲2012년(1200만원) ▲2013년(1100만원)으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해온 익명의 기부 행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했다고 바로 끊어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체납자들에게는 납부 약속을 받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문화전당 건립에 되살아나는 옛 도청 앞 '광장 문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5·18 민주광장)은 광주의 집회·시위의 메카였다.

5·18 민주항쟁 이후 학생 시위와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마무리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집회·시위의 '메카'였던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이 다시 각종 집회·시위 등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기자회견 8건 중 4건이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됐다. 문화전당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상징성이 깃든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벌써 감지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는 지난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선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학생·시민들이 모여 '민주민주화대성회'를 열었던 장소다.

80~90년대만 해도 학생 시위는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고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 뒤 도청 앞 분수대 광장까지 가두 시위를 하고 집회를

5·18민주항쟁 때 집회의 메카
지난달 행사·기자회견 8건 중
4건이 분수대 광장에서 열려

가 벌써 감지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는 지난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선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학생·시민들이 모여 '민주민주화대성회'를 열었던 장소다.
80~90년대만 해도 학생 시위는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고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 뒤 도청 앞 분수대 광장까지 가두 시위를 하고 집회를

마무리하는 게 당연한 듯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내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분수대 광장이 새단장되면서 넓은 광장과 유동인구, 집회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등 집회 장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사업을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 지난 10월 말 분수대 광장을 열린 광장으로 개명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이 집회·행사의 중심지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평묵항의 슬픈 성탄절

성탄절 전날인 24일 진도군 평묵항에서 세월호 실종자인 양승진 안산 단원과 교사 부인 유백형씨가 사고해역 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세월호 수색 중단을 선언하고 선체 인양 방침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탓에 희생자 가족들 일부는 여전히 슬픔의 땅 평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진도군 평묵항에서 세월호 실종자인 양승진 안산 단원과 교사 부인 유백형씨가 사고해역 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세월호 수색 중단을 선언하고 선체 인양 방침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탓에 희생자 가족들 일부는 여전히 슬픔의 땅 평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우버택시' 불법 운송 사업 기소

미국인 창업자 한국 법정서 재판... 국내법인 대표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다. 우버택시 창업자는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중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니(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

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도 입구에서 더플러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요금은 각각 9000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불법조업 중어선 8척 나포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8척이 불잡했다. 24일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목포해양경비안전서를 비롯해 인천, 제주서의 대형함정과 헬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 대원들이 전남부터 신안군 흑산도와 거제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대원들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신안군 흑도 서쪽 해상에서 학공치 405kg을 잡은 중국어선 98t 쌍타망어선 노영어 71230호 등 무허가 중국어선 4척을 검거,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이날 7시 30분께 거제도 남서쪽 해상에서도 조기 등 어획물 17.51t을 축수 기재한 중국어선 158t 쌍타망어선 등 4척을 제한 조건 위반 혐의로 불잡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이낙연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7명 벌금·징역형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이 벌금·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경선 비서관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돼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가량 권리 당원 3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비 대납 행위는 선거결과

를 왜곡하려는 시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당비 대납으로 이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받는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징역 8월 ~ 2년 6월)보다 형량을 낮춘 배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뒤늦게 불잡힌 선거캠프 간사 조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모(56)본부장, 배모(55) 대변인, 김모(여·57)씨, 김모(47), 양모(30)특보,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90만~1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할머니 리어카 절도 '해도 너무했네'

고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노인의 '고물' 리어카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달미.

○2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입구에 있던 나모(여·72)씨의 리어카를 훔친 혐의.

○경찰은 고물을 살아 나르는 리어카를 찾기 위해 시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인근 CCTV 등을 뒤져 리어카를 가져간 김씨의 범행 여부를 몇 개월 만에 확인했는데, 다른 범행으로 이미 교도소에 간 사실을 알고 허탈.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메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대안리는안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라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